

buddhanews.com

주인공 속에서 나오는 것 주인공 속에서 해결하세요

25면에서 계속

간지육이라고 평소에서도, 지금 그 국내 밥내도 못 달고 사는 지육이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허다하게 지육이 보이지 않습니까? 지육이 따로 있어서 지금 교도소에서 정치범은 정치범대로 도둑질한 사람은 도둑질한 대로 따로 가두어 놓듯이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그대로,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조상들이 돌아가시거나 사람이 죽으면, 쌀을 그냥 고스란히 해 놓기도 하고, 재를 그냥 아주 곱게 쳐서 이렇게 해 놓는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문으로 나가는 데다 이렇게 해 놓으셨던 그거를 보죠. 보시면 꼭 발자국이 그렇게 있거든요. 땀이 된 거는 기다랗게 늘어져 있고, 사람이 된 거는 사람 발자국이 돼 있고, 또 닭이 된 거는 닭 발자국이 돼 있고 그렇게, 곱다란 재 위에 그렇게 자국이 나 있습니다. 그것도 무시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닭이 돼 보세요. 허, 몇천 번을 자기가 죽어요, 몇천 번 그냥 그냥! 뜨거운 물에 삶겨서 그냥 몇천 번 죽어요. 허허허...

그러니 핏털 끊는 가마솥에 들어가려나, 이런 소리가 나오죠. 허허허... 또 독사 소굴에 들어가려나 이런 소리는, 독사 소굴이라는 게 다른 겁니까? 독사가 사는 데에 그 영이 들어가면 독사 로다가 화해서 모습이 돼 나오는데, 그러면 독사 인 거지 뭐 다른 겁니까? 그러니까 독사 소굴에, 그 깊고 깊은 독사 지육에 들어가려나, 화탕지육에 들어가려나, 그냥 뉘뉘소리가 나오죠.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보고 느끼고 살고 있는 그 자체입니다. 어디 지육이 뭐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이승에 지육도 있고 천당도 있고, 중세 계도 있고 하세계도 있고 삼세계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자유자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어진 권리를 찾아야지요. 본래 있는 거니까, 우리들이 본래 권리를 99%를 받아 가지고 나온 거니까, 인간으로 나왔으니까요. 전자에 깨진 부처님도 사람이지 뭐, 귀신입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부처가 될 수 있는 거지 사람이 아니라면 부처 될 수가 없죠.

질문자2(남): 그러면 그 상천세계 같은 데서 불도를 지금 닦고 있습니까? 상천세계에서?

큰스님: 아, 지금들 모두 닦고 있지 않아요?

질문자2(남):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인공이 모든 것을 한다고 저희들이 배우고 그렇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주인공이 하면 되는데 왜 그것을 돌려 놓고 또 맡기고 이렇게...?

큰스님: 모르니까 그렇죠. 지금 주인공이 (질문자를 가리키시면서) 그 종이 한 장을 들고 이러하고 있는 겁니다. 주인공이 일거일동하고 돌아가는 거죠. 시공을 초월해서 고정됨이 없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표현을 할 때 수레라고 했습니다. 수레! 수레바퀴와 같이 돌아간다고. 그런데 그 수레를 누가 굴리느냐? 바로 심봉이 끼워져 있기 때문에 그 수레는 돌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너를 돌아가게 하는 그 불성 자체 기둥을 믿어야지 어딜 믿느냐? 돌아가게 할 수 있는 심봉이 바로 너의 주인이지 어디 따로 있느냐? 이런 겁니다. 주인은 주인인데 돌아가는 게 또 있으니까 '공'이었습니까. '주인공!' 허허허... 그래, 공이 색이요 색이 공이 아니라 그랬지요. 그 가운데에 바로 부처는 있느냐 이런 겁니다.

질문자2(남): 저희가 믿고 맡기고 가면서도 어떤 때는 다시 또 의심이 나서 다시 또 맡겨야 되고 그러는 것은 전에 살던 습이나 그런 거에 의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어떤 업에 의해서 그런 것인지 그거 한 가지 알고 싶습니다.

큰스님: 본래 뿌리만 안다면 모든 싹, 이파리를 다 거기 놓기 때문에, 그냥 병도 붙을 데가 없고 또 번뇌 망상도 일어날 데가 없고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되는데, 지금 배우는 사람에게 한해서는 그 번뇌 망상이나 그런 것도 다 그 속에서 나오니까 그 속에서 되놈으면 됩니다. 되놈기만 하면 그 망상이니 뭐니..., 지금 뭐라고 그랬죠?

질문자2(남): 네, 습성에 의해서 그러는 것인지?

큰스님: 습? 습도 이 지금 입력이 돼 있거든요, 과거에 살던 습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습대로

도 그렇고 후일도 그렇고, 세세생생에 우리가 한 자리를 하게 됩니까? 하아아... 그때는 옛날 얘기 하겠지요. 허허허... 우리가 이 공부를 하면요, 다 알게 돼 있었어요. '아, 예전에 우리가 이렇게 만났었지.' 하고 말이예요. 그거는 이제 그때 당해 보면 알게 돼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예가 있었어요. '히! 당신네들이 아무리 잘났다고 해도 죽으면 한 번쯤은 나를 거치지 않고는 못 간다.' 허허허...

질문자3(남): 좀 개인적인 질문이거든요. 이런 기회가 아니면 큰스님을 가까이 뵈고 질문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용기를 내서 나왔습니다.

큰스님: 개인적인 것이 따로 없어요, 공적인 것이 따로 없어요.

질문자3(남): 이 법을 만난 지는 얼마 안 되는데 열심히 한번 해 보겠다는 생각이 간절하게 듭니다. 제 그릇에 맞게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지 한 말씀 해주시면, 제 평생을 살아가는 데 좌우명으로 삼고 열심히 정진하겠습니다.

큰스님: 지금 열심히 살겠다고, 열심히 배우겠다고 말씀한 것도 그 속에서 나온 거죠? 주인공

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태어난 거부터 죽는 거, 사는 거, 뭐 생활하는 거, 나라가 움직여지는 거, 전체가 모두 바로 부처님 법입니다. 그러니까 그 법을 모두 응용하세요. 자기부터 알아야 세계를 알고, 세계를 알아야 삼천대천세계를 알죠. 아까 예언하는 얘기를 했는데, 예언을 하자 하면 그냥 뉘뉘뉘 못 견디겠죠. 하지만 예언은 해서 될 합니까, 그놈의 거.

사회자: 법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너무 길어서 큰스님께서 지루하셨겠습니다.

큰스님: 얼마나 됐습니까?

사회자: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큰스님: 그러세요? 그냥 많이도 부풀리시는 데... 허허허... 하아아... 제가 부닥드릴 얘기는 우리가 인간이라면 다섯 가지만큼은 누구한테도 기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다섯 가지 아시죠? 죽는 거, 아픈 거, 먹는 거, 흥 누는 거, 자는 거 이 다섯 가지는 제 아무리 재주가 훌륭해도 대신 못 해 줘요. 그렇기 때문에 '다섯 가지 오신통이라는 것도 도가 아니니라.' 한 것이 거기에 원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 왔다가 혼자 가는 길에, 지금 한 철 나는 길에, 세세생생 돌아가는

나라를 그냥 휘어잡을 수 있게끔 할 수도 있는데 아니, 왜 그렇게 아등바등합니까? 그럴 것 없어요. 그저 춤추고 놀다 가는 거와 같으니까요.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한해서는 천천히 되느냐 일찍 되느냐가 문제지, 안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저 돈도 생명이 있고 마음이 있는 거라 그냥 요렇게 들여다보다가 '아휴, 저 집에 들어가서는 내가 고통스러워. 쪼개고 쪼개고 아이고, 구렁이.' 그러면서 달아 나간다고. 그런데 화목하고 웃고 즐기면서 '이거는 이렇게 쓰고 이거는 이렇게 쓰고 그러자.' 이렇게 하면 '아, 그러면 요게 참 편안하겠구나.' 그리고 그 집으로 들어간다고요. 이게 사실입니다. 내 그런 거 봤는데요? 허허허...

그럼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해 드린 것은 말일 뿐이니 그 뜻을 잡으세요. 말을 잡으시 말고 뜻을 잡으세요. 옛날에 두 친구가 살았는데, 하나는 지금으로 치면 출세를 해서 나라의 국록을 먹고, 한 사람은 과거를 보려도 영 안되고 그래서 진탕 술이나 먹고 그러니까, 친구의 불기도 때리고 온통 그렇게 하면서 뉘뉘뉘라는 그 집을 살리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진짜 사람을 만들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말을 이렇게 할 때에도 나는요, 진짜 눈물을 머금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가 너무 처절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내 이 일신이 이렇게 살아온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 분과 더불어 같이 그렇습니다. 수억겁을 거쳐서 살아올 때에, 텔레비전에서 그런 거 보시죠? 그 처절하게 그냥 쫓기고 잡혀서, 그 자리에서 그냥 산 채로 이리 뜯기고 저리 뜯겨서 먹는 거 말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닭 얘기 했지만, 닭이든지 뭐든지 그냥! 산 채로 딱 잘라서 그냥, 아이고! 뭐, 사시미고 뱀이고 뭐든지 그냥 딱 잘라서 피를 내서 먹고들 이러는데 아이, 징그러워서... 징그러운 것보다도 그것이 바로 진화되기 전에 우리가 그 모습을 해 가지고 밑에서부터 거처서 온 거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상 정원이란 나무들과 정원이 다 생기고 난 뒤에 맨 마지막에 사람이 생겼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라고 늦어서...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생각할 때 그것이 바로 그 네들만 아픈 게 아니라 내 아픔과 같아요. 그러니까 제일 첫번째가 살생을 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래도 어차피 먹어야 사니까, 살기 위해서라던 죽었던 것을 사다 먹으면 되지, 왜 일부터 산 거를 죽여서까지 먹느냐 이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하아아 열심히 해 주십시오.

※위 법문은 1995년 2월 5일 법행제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한마음선원)에서든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혼자 왔다 혼자 가는 길에, 지금 한 철 나는 길에 세세생생 돌아가는 거를 전체 집어 먹어야 됩니다

자꾸 나오고, 또 이 바깥에서 자꾸 습이 들어가죠. 그래, 그 습을 때는 게 아니라 '욕력' 이겁니다. 내가 그래서 컴퓨터 얘기를 하고 그 입력 얘기를 하죠. 인간은 자동적인 컴퓨터가 있어서 무조건 입력이 된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습이든지 뭐든지 자기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거기 입력이 되거든요. 입력이 되면 입력이 되는 대로 그것이 나오는데, 마음을 내는 것은 우리가 그 입력된 거를 듣느라고 버튼 누르는 거나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나오죠, 그게. 감졌던 게 나오죠. 나오는 거를 즉시 즉시 거기다가 다시 놓게 되면, 입력을 하게 되면 앞서 입력된 게 없어지지 않느냐 이런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앞서 입력된 거를 없애려면, 이 열지열이라고 하듯이 거기다가 되놔야 된다. 즉 몸통이 속에, 얼른 쉽게 말해서 생명들이, 의식들이 몸뚱이 들어 있어서 의식에 의해서 차례차례로 나오는데, 그것이 업보니까 말입니다. 그 나오는 것을 나오는 대로 거기다 입력을 해보세요. 그 속에다가. 그래서 '한마음 속에서, 주인공 속에서 나온 것 주인공 속에서 해결하라.' 하고 거기다 되놔야 이겁니다. 주인공이면 뚱뚱 다예요. 지금 자기가 움직여지고 말하고 하는 것까지도요.

질문자2(남): 감사합니다.

큰스님: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지금

속에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주인공이 한 거지 먹의 껍데기가 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 껍데기가 아닌 그 자기 주인공을 믿어야죠.

질문자3(남): 예.

큰스님: 그러하면 돼요. 허허허... (대중 웃음)

질문자3(남): 고맙습니다.

큰스님: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승화시키느냐에 달려 있지요. '요거는 요렇게 해 갔는데, 이만치 이렇게 가게 하는 것도 너 아니야?' 하고 자꾸 승화시키고 발전시키는 데 따라서 여러분이 더 발전을 할 수 있어요. 똑같이 나왔는데도 더 발전하는 사람이 있고, 아주 못하는 사람이 있고, 아주 말바닥에서 헤매는 사람이 있죠.

질문자3(남): 제가 실은 여기 나온 것은요,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데 이 공부를 잘해 가고 있는지, 스님한테 점검이라고 하면 이상하고, 잘못해 가고 있으면 스님께 죽비를 좀 맞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큰스님: 이미 죽비는 맞았는데요, 뭐, 허허허... 그래도 죽비를 맞았으니까, 누가 때렸느냐? 자기가 자기를 때린 거니까, 두 마음이 아니라 한마음이니까 말입니다. 맥이 말을 하고 내가 대답을 할 때 벌써 하나로 바뀌어져서 죽비는 하나가 됐죠. 그러니 맞은 것은 없지만 맞은 게 있는 거죠. 생활을 벗어나서 내가 없고, 나를 벗어나서 생활이 없

거를 전체 집어 먹어야 된다 이겁니다. 지금 한 생애, 한 철만에 집어 먹어야...

이런 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고자 한다면 되는 일이지, 안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배우는 사람들은 '문을 찾아서 다니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즉 '학문을 따져서 책을 보고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는 겁니다. 책을 찾아서 다니는 건, 글자를 보고 알아서 깨치려고 하는 거는 저런 문 찾아다니는 거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이 없는 문을 찾아서, 문이 없는 문이 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 문 없는 문을 찾아서 성불하십시오.' 하는 겁니다.

이게 내가 생각할 때는 무척 쉬운 건데 모두들 그래요. 그냥 뭐 자든지 깨든지, 일어나든지 앉든지, 일을 하든지 모든 게 그놈이 움직여지게 하니까 하는 건데 '네놈이 주인이 돼서 움직여지게 하는 거니까 네 몸뚱이로 네가 가지고 가라.' 이런 아주 편안하죠, 그냥 아주! 일생이 다 편안해요. 그냥 그런 건데 뭐가 그렇게 사는 게 괴롭습니까? 왜 한 철 놀다 가는데 즐겁게 놀다 가지, 왜 그렇게 공상으로 살다가 가야 되느냐 얘깁니다.

그리고 옷만 벗어 버리고 또 다시 옷을 입고 나올 텐데 그까짓 옷이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요 다음에 아주 그냥 세련되게 생물을 해 가지고 내가 그냥, 허허허... 아주 거룩하게 탄생을 시켜서

기름값의 1/5 이하로 절약되는
돌고래 슈퍼순간전기보일러

국내개발 1호!
기름값 대비 **80% 이상 절감**
심야전기 대비 **1/2 이상 절감 효과**

사찰, 포교당, 수련원, 교육시설, 복지시설, 호텔, 모텔, 펜션, 기든 등에 설치 최적함

사찰·포교당·불교시설 상담 대환영!!
전기보일러 15년 경력 전문가 직접 상담·시공 뛰어난 내구성, 30년 이상 반 영구적.

♣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불자 해봉 -

돌고래 슈퍼 에너지
공급원 : 서울시 강동구 길동 454-1 일성오피스텔 1101호 / 사무실 : 02)471-2356
상담전화 : **1688-3346, 011-335-6389** www.superenertec.co.kr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대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